

# “요동 초기 청동기문화의 형성과 한반도 무문토기의 기원”에 대한 토론문

배진성(부산대학교)

발표문은 요동지역과 압록강유역의 신석기시대 末 청동기시대 初의 토기를 통해 요동지역 청동기시대 형성과정, 그것이 압록강유역에 끼친 영향, 그 속에서 한반도 무문토기의 기원을 파악하려는 글이다. 이를 위해 요동~압록강유역의 소지역별 현황을 정리한 후, 각 단계별 병행관계를 검토하고 청동기시대 형성과정을 그려내려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하에서 발표문을 보면서 떠오른 의문점, 앞으로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 편년 등에서 토론자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한다.

## 1. 요동~압록강유역 전환기의 특징과 ‘무문토기’ 용어의 사용

한반도, 특히 남한의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의 전환이 급격하고 단절적인 측면이 강한데 반해, 이 지역은 연속성이 강하는 점이 예전부터 주의되어 왔으며 발표문에 그러한 언급들이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경우 어느 단계부터 청동기시대라는 식으로 실선을 긋기 어렵고 연속적인 과정 속에서 청동기시대로 전환하는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발표문에는 이 같은 양상을 보이는 요동~압록강유역의 토기에 ‘무문토기’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sup>1)</sup> 아마도 발표자는 <표 2>에서 청동기시대로 설정한 단계의 토기가 이전 단계에 비해 문양의 소멸·쇠퇴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무문토기’로 지칭한 것 같다. 그런데 이 지역의 경우 시기는 달라도 기형이나 문양의 계통성 혹은 유사성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발표문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과 시기를 논할 경우, 청동기시대의 토기라고 해서 바로 ‘무문토기’로 하기 보다는 문양이나 기형을 이용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兩 時代의 연결성이 강한 이 지역의 전환기를 언급할 때 통일성·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청동기시대로 설정된 단계의 토기를 ‘무문토기’로 부르는 것은 지극히 한반도, 그것도 남한의 입장에서만 바라본 것일 수 있고, 발표문처럼 요동~압록강유역만을 다룬다면 이 지역 자체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서 용어 사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신암리 I(발표문의 ‘청등읍’)의 경우 분명 신석기 마지막 단계를 포함하지만, 종종 전환기를 포함하는 단계로도 논의되어 왔다. 그럴 경우 이 단계에는 신석기시대의 토기와 무문토기가 공존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데, 과연 문양의 有無·多寡만으로 두 토기를 구분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가

1) “...청등읍기, 소주산상층 등에서는 이미 무문토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석불산 유적의 유물 중에서 무문토기는 따로 분리해서...” 등등.

사용하는 ‘무문토기’는 무문양토기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지역에 ‘무문토기’ 용어 사용의 적절성 여부 문제는 어디를 경계로 ‘무문토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지,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공간적 범위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해서 비단 발표자만이 아니라 무문토기 연구자 모두가 고민해 나가야 할 문제일 것이다.

## 2. 지역 간 단계별 병행관계

요동지역을 포함한 중국 동북지역 편년에서 쌍타자의 편년은 많이 활용되는 기준 가운데 하나이다. 발표문에서는 쌍타자Ⅱ기와 신암리Ⅱ기가 병행하는 단계로 설정되어 있는데, 기존의 여러 연구들을 보면, 신암리Ⅱ기는 주로 쌍타자Ⅲ기와 병행하며<sup>2)</sup> 발표자가 주로 참고하고 있는 古澤義久<sup>3)</sup>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 쌍타자Ⅲ기를 신암리Ⅰ기 병행으로<sup>4)</sup> 보기도 하였다. 즉, 쌍타자Ⅲ기는 한반도와 대비할 때 주로 청동기시대의 가장 이른 단계와 대비되어 왔다.

그런데 발표문과 같이 쌍타자Ⅱ기와 신암리Ⅱ기가 병행한다면, 쌍타자Ⅲ기는 남한의 전기 무문토기단계 병행으로 된다. ‘한반도 무문토기의 기원’을 목적으로 한 글이므로 이에 대한 발표자 나름의 논리가 필요한 것 같다.

## 3. 신암리 제4지점 제1문화층에 대하여

발표자는 신암리 제4지점 제1문화층을 신암리Ⅰ기 이전 단계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문화층은 표에서 보듯이 신암리3-1과 유사하고 아무리 빠르게 보더라도 신암리Ⅰ기 이전으로 보

<신암리 제4지점의 층위와 토기문양>

토기 층위	문양	비고
제3문화층	二重口緣(多), 節狀突帶文, 橫沈線+點列文, 突帶文	신암리Ⅱ
제2문화층	突帶文, 節狀突帶文, 圓形添附文, 斜線文, 雷文, 縱橫의 突帶文	당산상층
제1문화층	彩色文樣, 突帶文, 雷文, 三角文, 斜線文, 無文(多)	신암리3-1

기는 어렵다. 해당 보고문<sup>5)</sup>에 따르는 한 각 문화층은 간층없이 연속된 층위로 판단되며, 토기 문양은 표와 같이 대응한다.

또 발표문에 “...기존에 신암리Ⅰ기로 보았던 신암리 제4지점1문화층의 토기는 너문, 삼각문 등이 특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도면상으로는 침선이 시문된 이중구연토기

2) 小川靜夫, 『極東先史土器の一考察—遼東半島を中心として—』, 『東京大學文學部考古學研究室研究紀要』 1, 1982.  
千羨幸, 『한반도 돌대문토기의 형성과 전개』, 『韓國考古學報』 57, 2005.  
裴眞晟, 『無文土器文化의 成立과 階層社會』, 서경문화사, 2007.  
大貫靜夫, 『雙房型壺を副葬した石棺墓の年代』, 『東アジア青銅器の系譜』 新彌生時代のはじまり 第3卷, 雄山閣, 2008.  
3) 古澤義久, 『遼東地域と韓半島西北部先史土器の編年と地域性』, 『東京大學 考古學研究室研究紀要』 第21号, 2007  
4) 安在皓, 『青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6  
5) 姜중광, 『신암리원시유적 제4지점에 대하여』, 『력사과학』 1979-2

도 특징으로 생각된다...”라고 하였는데, 신암리 제4지점의 보고문에 도면은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토기를 지칭하여 이렇게 기술하였는지 본문의 문장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 4. 한반도 무문토기의 기원?

발표문은 제목에서도 그렇듯이 ‘한반도 무문토기의 기원’을 밝히는 것이 주목적인데,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단계 가운데 어느 지역의 어떤 단계가 한반도 무문토기의 기원과 관련되며, 어떤 토기들을 지목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결론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게 마무리 되었다는 느낌도 없지 않다. 아마도 ‘한반도 무문토기의 기원’이라는 정말 어려운 주제를 맡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식 논문으로 진행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그 전망을 부탁드려보고 싶다.

